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6월 19일(금)
(음력 5월 5일)
Пятница
19 июня 2026 г.
№ 24 (1219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6월 22일은 추모와 애도의 날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영예(슬라와)' 광장이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단신

사할린주, 전국 동시 묵념의 시간 동참

2026년 6월 22일 '추모와 애도의 날'을 맞아 모스크바 시간 정오12시 15분, 대조국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전국 동시 묵념의 시간이 선포된다.

1941년 6월 22일 12시 15분에 나치 독일의 침공 소식을 알리는 정부의 대국민 담화가 구소련 전역에 방송되었고, 이날 아침 대조국전쟁이 시작되었다. 1418일 동안 지속된 이 전쟁은 약 2700만 명의 소련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6월 22일 진행되는 묵념의 시간은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바치는 경의의 표시이다.

사할린주, 전국 투자환경 매력도 3위

사할린주가 국가 투자환경 평가에서 처음으로 전국 3위에 올랐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주재로 열린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성과가 발표됐다.

2018년 37위였던 사할린주는 이번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바쉬코르토스탄과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평가는 8개 부문(부동산, 기술 밀 공공 연결망, 기업지원규모, 수출활동, 기업 보호, 각 제반시설 구축과 통신, 인재 및 노동인력, 시장개발 및 구축)에서 88개 지표로 이뤄졌다.

주지사, '최우수 지구 담당 경찰관' 기념 표창 수여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사할린주 최우수 지구대 경찰관' 처음 기념기장을 수여했다.

기념장 수여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크세니야 알코 소령, 아니와 구역의 엘레나 플레셰츠코와 대위, 우글레고르스크 구역의 세르게이 케로브 대위 등 3명의 경찰관이다. 수상자들은 업무 실적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됐다. 이들은 가정폭력 예방, 불법이민, 마약밀매, 주류 위조 및 거래 등 민생 범죄를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할린주, 6월 27일 '청년의 날' 맞아 주류 판매 전면 금지

청년의 날인 오는 6월 27일 사할린주 전역에서 주류 소매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제한 조치는 사할린과 쿠릴 열도 전역에 적용된다.

주 정부는 대규모 축제 기간 동안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도입했다. 다만 레스토랑, 바, 카페 등 외식업소 내에서의 주류 판매는 평소대로 정상 유지된다.

2026년 6월 21일 의료인의날 기념

존경하는 의료인과 의료계 원로 여러분!

6월 3번째 일요일은 의료인의 날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의료인의 날은 널리 인류애를 베푸는 사람들이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이 젊은 시절에 방대한 지식을 쌓게 했고, 전문 의료인이 되어서는 세밀한 노력으로 병든 이를 고쳐주며, 건강을 돌려주고, 생명을 구해오셨습니다.

우리는 사할린 의료인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보건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각 주거 마을에 현대적인 의료장비를 갖춘 보건소와 조산소, 외래진료소를 개설하고, 기존 시설에 개보수공사 및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 의과대학 분교 설립도 성공적으로 이뤄져 지금은 사할린에서 미래의 의료인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구하시는 모든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가정에 강건함과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면서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의료인들께 의료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사할린 주지사, 쿠릴스크 구역 방문

알레리 리마렌코사할린주 주지사가 최근 쿠릴스크 구역을 방문해 키토위에 마을의 유치원과 아파트 건설 현장, 올해 레이도워 마을에 건설 가동되고 있는 생수생산공장, 이투루프섬에 현대식 경찰서 건설 현장 등을 시찰했다.

우선 키토위에 마을을 방문해 올해 말에 완공이 예정된 110명 수용의 유치원과 2027년에 완공이 예정된 18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유치원은 2층 건물(연면적 4300㎡)로 다양한 연령의 5 개반을 구성해 어린이의 지적 발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수영장, 보충교육, 조기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음악실, 체육관, 의무실, 사무실 등 제반시설을 갖추는 가운데 현재 공정률은 40%이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올해 안에 유치원이 완공되도록 엄격한 시공관리 및 감독을 당부했다. 유치원 옆 총 18세대가 입주할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아파트 외관공사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현재 지붕 및 내외부 시설 설비 및 설치에 집중하고 있다. 내년엔 준공 후 '생활의 제반시설 구축'기획의 일환으로 노후 주택으로부터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편안한 아파트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리마렌코 주지사는 레이도워 마을에 있는 생수생산공장 시설을 시찰했다. 이 공장은 올해 4월에 가동을 시작했다. '쿠릴스키 리바크' (지주회사 '기드로스트로이' 소속)

회사는 보그단 흐멜니츠키 화산 기슭의 암반 대수층에서 암반수를 채취해 '쿠릴스키 베레그'라는 상표로 고급 정수과정을 거친 생수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이투루프와 사할린 본토의 자사 매장에서 판매 중이며, 앞으로 극동의 기타 지역으로도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세르게이 보르조브 부사장이 밝혔다. 이 마을에 생수생산공장이 건설된 연유는 올라만의 여류가공공장이 연어 어획량 감소로 코르사코브 지역 오조르스크에 마을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생수 라인을 구축해 이전 생산가공공장 직원들의 일자리를 유지시키며 생수 생산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후 주지사는 이투루프 섬에 현재 건설되고 있는 경찰서 공사현장을 찾았다. 공사는 현재 82% 완료되었으며, 30명의 인력이 투입돼 출입문을 비롯해 창살, 내부마감공사, 환기 및 난방시스템과 CCTV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경찰서는 매우 중요한 시설인 만큼 올해 안에 이전할 수 있도록 공사를 완료하고, 경찰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 근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투루프 섬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주민들은 교통, 주택, 건설, 쿠릴 발전에 대한 전망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에 약 30개의 안건이 접수되어 관련부처에 전달하고, 검토를 통해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할린주 정부 자료에서)

새고려신문

2026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서 한국문화축제 '하나 되는 올림' 성료, 단오와 '이완 쿠팔라'를 주제로 조화로움을 만든 무대

지난 6월 11일(목) 사할린국립대학에서 한국문화축제 ‘하나 되는 올림’이 개최됐다. 이날 프로그램은 문화체험교실과 뮤지컬 공연 ‘하늘의 한가운데’(Середина неба)로 구성되었다. 공연 전 사할린국립대 2층에는 한민족 문화 체험교실이 열렸다.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는 부채 민화그리기 활동교실과 수리취떡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고, 단오를 주제로 한 포토존을 준비했다. 한민족여성네트워크 사할린지부(담당 최금순)와 ‘인북’ 스튜디오는 한복을 입어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한복 종이접기 체험교실, 투호놀이 공간을 준비했다.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박수식)은 달고나 만들기 활동교실을,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고영순)는 종이연꽃 만들기 활동교실을 각각 진행했다. 모든 체험 부스마다 큰 인기를 끌었고, 행사장은 찾아온 손님들로 흥성거렸다. 무엇보다 그 간 분열된 모습을 보이던 사할린 한인사회 각 단체가 이날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한민족 문화를 소개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날 주요 프로그램인 뮤지컬 ‘하늘의 한가운데’ 공연은 사할린국립대 ‘심포니아’ 공연장에서 펼쳐졌다. 한국의 전통명절 단오와 러시아 슬라브 민속축제 ‘이완 쿠팔라’를 교차해 조명하며, 두 민족 문화 간의 깊은 공통점과 조화를 보여줬다.

이 행사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소장 국장현)가 제안하고, 사할린국립대학 언론·역사·동양학대학 학장 임 엘비라가 기획을 맡았다. 임 학장은 “단순한 축제가 아닌 이야기가 있는 공연으로 만들고 싶었다.”며 “단오와 ‘이완 쿠팔라’

는 모두 여름 햇빛이 절정일 때 대지에 감사하고, 액운을 쫓는 공통분모가 있어 이 주제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공연에 130여 명의 대학생 및 초중등생, 선수들로 구성된 공연단은 열정이 돋보이는 무대를 펼쳤다. ‘하늘’ 타악기 팀의 북공연으로 포문을 연 이번 무대에는 ‘에트노스’ 학교 학생들과 동포 가수 서 마리나의 노래 ‘운명’, ‘아리랑’ 무용단장 박영자 씨의 전통춤, ‘에트노스’의 칼춤, 러시아 민속문화를 소개하는 무대, 태권도·국궁·씨름이 결합된 퍼포먼스 ‘현재의 에너지’, 김일남 댄스학교의 현대 댄스 ‘우리’, 그리고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은 케이팝(K-pop) 커버 댄스 무대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꾸며졌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이 무대는 젊은 세대는 물론 기성세대의 마음까지 사로잡았고, 특히 케이팝과 현대 댄스 장르는 공연 내내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극 중 할머니(박영자)와 손자(보그단 아르자마소브), 두 손녀(마리아 하르추키나, 스타니슬라와 스텔니흐)가 등장해 세대와 민족을 넘어 전통을 전승하는 서사를 생생하게 담아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그리고 서 마리나, 우 미하일, 블라토와 크리스티나와 블라토브 스바토슬라브의 공연의 마지막 노래 ‘하늘의 한가운데’ 무대가 훌륭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연출, 음악, 영상 스태프 대부분이 사할린국립대학 출신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극본 나탈리아 코왈, 연출 올가 노위코와, 음악감독 예브게니 코로브코브 등이 힘을 보탰고, 또한 공연 준비에 언론·역사·동양학 대학 외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리체이와 사할린 필하모닉이 크게 협조했다.



이모저모

'러시아의 날', 100여 명의 사할린 주민들, 라구쉬카산 정상에서 국기 펼쳐

6월 12일(금) 러시아의 날을 기념하여 국민전선과 국민전선의 청년팀이 사할린의 전설적인 '라구쉬카'봉우리로 대규모 단체 등산을 개최해 이에 군장병들을 비롯해 사회활동가, 장애아 가정, 자원봉사자들과 다자녀 가정, 특수군사작전 참전장병의 가족들이 라구쉬카(개구리) 봉우리 등산에 참여했다. 개구리산 정상에 올라 이들은 거대한 러시아 삼색 국기를 펼쳤다고 국민전선 사할린주 지부가 전했다.

이번 등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특별한 행사로서 다리아 콜쵸와는 군인의 아내로서 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9개월 된 딸과 함께 산에 올랐다. 하카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 아이페리는 아이들에게 섬지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국가 기념일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사할린을 방문했다. 등산 후 활동가들은 참가자들을 위한 단체별 게임을 진행하고, 대공미사일연대는 야전식량을 마련했으며, 러시아 주민단체도 모두를 위해 다과를 준비했다.

Сотни сахалинцев растянули триколор на вершине Лягушки в День России

В массовом восхождении на останец участвовали волонтеры, многодетные семьи и близкие бойцов СВО. В пятницу, 12 июня, Народный фронт и его молодежная команда организовали праздничный подъем на легендар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останец Лягушка. День России объединил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активистов, семей с особенными детьми. А на вершине участники развернули огромный флаг России.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многих этот поход стал глубоко личным событием. Например, жена военнослужащего Дарья Кольцова поднялась на гору с сыном-школьником и девятимесячной дочкой. А гостя из Хакасии Айпери специально привезла своих детей на Сахалин, чтобы показать им красоту острова и вместе встретить глав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раздник.

После восхождения активисты устроили для гостей командные игры. Зенитно-ракетный полк развернул полевую кухню, 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усской общины приготовили для всех угощения.

중국, 도심 고임금 일자리에서 목축업으로 열풍 일어

중국에서 심각한 근로시장의 위기가 관찰되고 있는 가운데

데 근로시장의 노동력 과잉 상황에 고되고, 지친 생활에서 벗어나 사람들은 대도시 외곽의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중국 소셜네트워크 '웨이보'에 공지된 중국 사막 외판지역의 목축업 채용 일자리가 큰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2명을 채용하는 자리에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했다. 텔레그램 '다오케다오'에 따르면 이 채용에 대한 조회수는 5천만 이상이라고 전했다.

중국 내몽골 자치구의 외판 대초원에서 2,000헥타르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가 '웨이보'를 통해 3,000마리의 양떼를 돌볼 목동 2명을 채용한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이 양 목축업 양치기의 업무는 양에게 먹이를 주고, 겨울철에 따른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특수 조건에서 축사를 청소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건의 일자리가 구직자들에게는 위험이 되지 않았고, 이 채용에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했다. 농장에서는 숙식을 제공하고, 월 8,000위안(약 8만3천 루블리)라는 상당한 근로임금을 제시했는데 이는 도시 월평균 근로임금(6,000위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이다.

농장주는 상당한 채용지원서를 보고 놀랐고, 순수하고도 거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인원이 더욱 인상적이었다. 지원자들 중에는 대도시 상하이, 충칭 등 사무직 직원들을 비롯해 중국 전역의 공장 노동자 심지어 대학 졸업생들까지 다양했다. 해당 채용광고는 텔레그램 '웨이보'에서 5,9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21,000개의 댓글 토론이 생겨났다.

350 человек на место: в Китае возник ажиотаж вокруг работы пастуха с зарплатой выше городской

В Китае наблюдается настоящий кризис рынка труда. Избыток рабочих рук на рынке труда и изматывающий ритм жизни заставляет людей искать вакансии вне мегаполисов. Недавно опубликованные в китайской соцсети Weibo вакансии пастухов в отдаленные пустынные районы Китая вызвали настоящий ажиотаж: на две вакансии претендовали аж 700 человек. Количество просмотров объявления достигло 50 млн.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Telegram-канал Daokedao.

Фермер, ведущий хозяйство на площади 2000 га в труднодоступных степях в китайской провинции Внутренняя Монголия, разместил в Weibo объявление о том, что требуются два пастуха для выпаса отары в 3000 овец. В обязанности работников также входит кормление скота и уборка хлебов зимой, в специф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когда температура опускается ниже 30 градусов мороза.

Тем не менее это не испугало желающих трудоустроиться. Заявки подали свыше 700 человек. Тем более что работодатель предлагает неплохую зарплату – 8000 юаней (около 83 000 рублей) в месяц, что значительно выше средней зарплаты в городах (порядка 6000 юаней), учи-

тывая, что на ферм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жилье и питание.

Фермер был ошарашен, когда ему поступило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заявок. Впечатлял и контингент желающих выполнять такую далеко не стерильную работу. Среди претендентов были и офисные работники из таких крупных городов, как Шанхай и Чунцин, рабочие заводов со всего Китая и даже выпускники университетов. Объявление набрало 59 млн просмотров в Weibo, вокруг него появилась 21 тыс. дискуссионных веток.

러시아의 날 맞아 사할린의 표도르 센추코브 재즈오케스트라 2주년 기념 공연

6월 12일 러시아의 날을 맞아 사할린 필하모닉오케스트라 78회 시즌 마지막 공연 중 하나가 '심포니아'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표도르 센추코브가 지휘하는 재즈오케스트라는 '업선된 곡'이라는 명곡으로 재즈오케스트라의 창단 2주년을 축하했다. 이 축하 공연은 단순히 오케스트라의 시즌 공연을 총마무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정 재즈라는 장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자리였다.

공연 프로그램은 주로 오랫동안 연주되었던 정통 재즈와 사랑받는 작품들, 재즈 애호가들 모두에게 익숙하고, 음악인들이 좋아하는 곡목들로 구성되었다. 오케스트라의 각 솔로연주자들은 공연에 생동감 넘치는 즉흥적 활기를 더하며 저마다 숨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재즈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섬세한 서정성과 역동적인 선율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며, 1시간 30분간 공연장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공연의 백미(白眉)는 재즈가수들의 노래로 알렉산드라 발렌코를 비롯해 빅토리아 말류첸코, 파벨 웬츠콥스키가 무대에 차례로 올라 솔로와 듀엣을 선보였다.

사할린의 음악인들은 관객들에게 생동감 넘치고, 진솔하면서도 가슴에 와닿는 감동적 공연을 선사했다. 이번 재즈공연은 재즈가 해석이 필요 없는 보편적인 음악적 언어임을 명확히 확증했다.

Сахалинский джаз в День России: как оркестр Федора Сенчукова отметил двухлетие

В День России, 12 июня, в 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Симфония» состоялся один из финальных концертов 78-го филармонического сезона. Джазовый оркестр под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ора Сенчукова отпраздновал свой второй день рождения знаковой программой «Подобранное». Этот праздничный вечер стал не просто творческим отчетом коллектива о проделанной за сезон работе, а настоящим признанием в любви жанру.

(8면에 계속)

사할린서 한국문화축제 '하나 되는 올림' 성료, 단오와 '이완 쿠팔라'를 주제로 조화로움을 만든 무대



이날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국장 현 소장은 “문화는 서로 다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보고, 듣고, 체험하며 한국을 더욱 가까이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소통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우정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출장소는 사할린 지역사회와 함께 문화·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위해 가장 힘써주신 사할린국립대학교 한국 어학과가 올해로 35주년을 맞이하는데, 이번 행사가 그 기념과 축하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다. 관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한 참석자는 “단오와 ‘이완 쿠팔라’의 연결점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엮일 줄이야”라며 감탄했고, 다른 이는 “러시아에도, 한국에도 소개해야 할 수준”이라고 평했다. “정말 창의적이고

기발한 무대공연, 사할린다워요.”라는 찬사와 “한국에서 잊힌 단오를 사할린이 이렇게 계승하다니 감격스럽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객석이 만석을 이룬 이날 1시간 넘게 진행된 공연은 관객들의 마음에 활기찬 생동감과 조화의 미로 감동을 선사했다. 무대가 끝난 뒤에도 관객들은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한 채 박수를 보냈다. 두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이 밤은 사할린의 문화적 실험을 넘어 ‘하나 됨’의 올림을 온몸으로 느끼게 한 진정한 축제였다. ‘하나 되는 올림’ 한국문화축제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대한민국영사출장소(소장 국장현)가 주최하고, 사할린국립대 연문·역사·동양학대학(학장 임 엘비라)이 주관했다. 협찬 기관 및 단체로는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고영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사할린지부(담당 최금순),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박수식),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근),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교장 위로호와 안나), ‘하늘’ 타악기 팀(단장 송천석), ‘토르나도’ 스포츠클럽(회장 성 나제즈다), 사할린주씨름협회(회장 춘 알렉세이), ‘인복’ 스튜디오(대표 최금순)가 협력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사할린동포를 위한 알기 쉬운 법률교육 개최

재외동포청이 주관하고 법무법인 '덕수'가 수행하는 '2026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13개 지역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진행하였고, 5월 26일 사할린동포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법률교육도 안산 고향마을에서 실시했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를 대상으로 6월 18일(오후 2시)에 '사할린 동포를 위한 알기 쉬운 법률교육'을 개최했다. 수행기관인 법무법인 '덕수'의 조영관 변호사의 진행으로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귀국 후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법률과 행정지원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는 조영관, 이영규 변호사, 김연주 행정사도 함께하며, 통역으로 사할린 동포 서 드미트리, 백봉순 두 분이 도왔다.

(KIN(지구촌동포연대) 제공)

유즈노사할린스크 '머위 축제'에 시민 2천여 명 모여

지난 13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가가린 시공원의 '코스모스' 경기장에서 사할린의 야생식물들을 주제로 한 <로푸흐(머위) 축제>가 성대하게 개최됐다.

축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문화관광센터(센터장 안드레이 수호노스)와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운데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과 사할린 주민 약 2천여 명이 참석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행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주최 측은 이날 축제를 위해 사할린의 머위 500kg를 준비했다. '머위볶음' 요리교실에서는 사할린의 한인들이 조리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요리에 300여 명이 참여했고, 또한 시식용으로 1,000인분이 무료로 방문객들에게 제공됐다.

수호노스 문화관광센터장은 “야생식물들이 왕성한 5월에는 칼루즈니차(동의나물)를 시작으로 고사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위 축제로 이어진다. 이 행사는 인기가 높아 연해주, 하바롭스크, 아무르주, 심지어 마가단

에서도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이제는 사할린 여행과 함께 사할린의 미식여행도 함께 하는 것이 매력이 되고 있다. 이번 머위축제의 핵심 표어는 ‘마트료시카 속에 담긴 러시아의 영혼’으로 다민족의 화합과 우정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축하무대에서는 ‘루스키 켄렘’ 현대 러시아 민요 앙상블, ‘월라’ 카자크 앙상블,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과 ‘희망’무용단의 한민족 춤, ‘하늘’타악기 팀의 공연이 어우러져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이날 축제를 찾아온 방문객들은 소회로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하다.”, “러시아인, 한인, 여러 민족이 함께 하는 행사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게 느껴진다.”는 등의 표현을 했다.



(본사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 윤 원

공훈록

1921년 3월 이후 서간도 군비단(軍備團)은 본거지인 길림성(吉林省) 장백현(長白縣)을 떠나 이만에 집결했다. 이후 자유시참변(自由市慘變)을 피해 각지로 분산한 군인들 가운데 연해주에 모인 상해파 인사들과 연합해 독립군 양성을 추진했다. 이들은 1921년 9월 이만에서 고려의 용군사의회를 조직하고 산하에 사관학교를 설립했다. 그리고 고려의용군사의회는 이 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은 생도들을 기반으로 대한의용군을 조직했다.

1921년 말 이만 남쪽 스파스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과 러시아 백군은 하바롭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첫 공격지점은 이만이었다. 1921년 12월 4일 대한의용군 제2중대는 이만을 방어하기 위해 이만전투에 참가했다. 이 전투에서 제2중대는 일본군의 지원을 받는 백군과 전투를 벌이다 3명의 생존자를 제외하고 전원 전사했다. 이때 제2중대 중대원 김윤원도 이 전투에서 전사 순국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10월혁명 10주년과 쏘베트고려민족(십월혁명십주년 원동기념준비위원회 편찬, 1927) 70~75면
- 러시아혁명기 원동해방전쟁과 한인부대의 활약(윤상원,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667~676면.

묘지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관리번호	952660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성명	김 윤 원	한자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미상	사망년월일	1921-12-04
본적	함경남도 이원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ередина неба»: в СахГУ прошёл музыкальный спектакль, объединивший русские и корейские традиции



В Год единств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стал площадкой для уникальн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спектакля «Середина неба». Постановка, посвящённая встрече двух культур — русской и корейской, — собрала на одной сцене традиции праздника летнего солнцестояния Ивана Купалы и корейского праздника Тано.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 не экзотика, а нечто родное и близкое.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 важная часть прошлого



и настоящего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мероприятие вызвало огромный интерес. В

зал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студенты СахГУ,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почётные гости из Южной Кореи — гла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ук Чан Хён.

«Сахалин — это не просто точка на карте. Это уникальное место, где культуры не просто соседствуют — они переплетаются, они живут, они слышат друг друга. Праздники Тано и Ивана Купалы — разные названия, разные обряды, но суть одна: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емле, очищение, здоровье и единство людей.

(Продолжение на странице 7)

«Лопух-фес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брал тысячи гостей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и культурный праздник состоялся в субботу, 13 июня,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 Ю. Гагарина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Мероприятие стало ярким финалом весенней гастро-трилогии, посвящённой дикоросам Сахалина, и собрало более 2000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региона.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события выступили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совместно с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праздника организаторы заготовили 500 килограмм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лопуха. В кулинарном мастер-классе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лопуха по-корейск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300 человек, а для всеобщей дегустации было подготовлено свыше 1000 порций.

«Все начинается в период дикоросов в мае: мы собираем калужницу, затем папоротник, и по восходящей приходим к финалу — „Лопух-фесту“, —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Андрей Сухонос. — Мероприятие востребовано. Люди традиционно приезжают к нам за сахалинскими дикоросами из Приморья, Хабаровска,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и даже Магадана. Они путешествуют и делают свои поездки по-настоящему вкусными! Лейтмотивом фестиваля стала концепция „У матрешки русская душа“, символизирующая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сть и дружбу народов».

На сцене гармонично переплетались выступления ансамбля современной народной песни «Русский терем», казачьего ансамбля «Воля», корейские танцы от коллективов «Ариранг» и «Химанг», ритмы ансамбля барабанщиков «Ханьль». Гости праздника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объединяющую силу фестиваля.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городу очень нужны! Смотрите, как они людей объединяют. Здесь все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и русские, и корейцы,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Мы же радуемся за то, чтобы люди объединялись, и вот видите, как это хорошо получается»,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местная жительница Елена Нестеренко.

Участница фестиваля Софья Шеваловская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впервые готовила лопух вместе с семьей: «Мы теперь будем собирать и готовить лопух сами, благо он у нас в изобилии.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точно нужны городу, они позволяют сблизиться людям в рамках семьи и всег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мимо кулинарного шоу, гости участвовали в интерактивных играх от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мастер-классах по росписи вееров и самоваров, посещали книжные ярмарки.

Фото Ли Е Сик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очерк Николая Долгополова о легендарном разведчике, Геро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Евгении Ивановиче Киме.

Жизнь в триумфах и трагедиях.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Ким (1932-1998)

Николай ДОЛГОПОЛОВ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18,19, 20,21,22,23)

Есть и другая версия. Юрий погиб, окончив 9-й класс. После тренировки в школе плавания «Динамо» вместе с приятелем сели на мотоцикл, недавно подаренный Евгением Ивановичем, и погнали на Клязьминское водохранилище. Вода теплая, Юрик здорово плавал. Но утонул...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делал все, чтобы поскорее приехать, проститься. Не получалось. Его ждали. Выбрался только через месяц. Переживал тяжело, болезненно.

Столько лет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вдали. И всегда Служба разведки помогала остававшейся в Москве семье. В трудные годы тотального дефицита окружала сына и жену заботой. Прикрепленный сотрудник старался решать бытовые проблемы, которые не могли не возникать. Так было и при жизни сына, и потом, когда мальчик погиб. Жену Кима не бросили на произвол судьбы и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ни расстались.

Давайте время от времени предоставлять слово самому Герою, полностью сохраняя его своеобразную манеру повествования, совсем не напоминающую официальную. Оставленные им воспоминания, скорее короткие записки, это позволяют:

«Мама умерла, когда я был в командировке. В один из отпусков меня отвезли к ней на кладбище. Стояла зима, и все могилы были засыпаны глубоким снегом. Я безуспешно пытался искать место, где она покоилась. Хотел встать перед ней на колени и положить к подножию памятника полученную буквально накануне Звезду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едь это ее награда, она меня таким воспитала. Слезы катились по моему лицу, и я ничего не мог с этим поделать. Про себя попросил у матери прощения за то, что так долго к ней ехал».

А вот и о гибели сына. Не было в жизни Евгения Ивановича Кима ничего более трагичного:

«...В ходе моей работы я встречался со многими хорошими людьми. Я всегда благодарю Бога за то, что Он свел меня с этими достойными людьми. Встречались порой в их среде и недостойные, но они все ушли, они были не в состоянии вынести подобное бремя.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особую смелость иметь. Не каждому дано такое качество. В качестве примера вспоминаю произошедшее со мной в связи с трагической смертью моего сына. Я очень долго не мог смириться с этим, вынести это. Вечером я получил сообщение о том, что моего сына не стало. Было где-то около девяти. Машину я оставил километрах в двух от места встреч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Центра. Я на место контакта машину никогда не вожу. Я ее бросил и пошел пешком. Одновременно и лишний раз проверился, нет ли «хвоста». Работы было очень много, я ответственно относился к подобным вещам. Но когда я получил ту весть, я сам не могу понять, как это получилось, что со мной было. Это как бы вторая жизнь, параллельная реальность, в которой делаешь все на автомате, не понимая, что с тобой происходит. Бывает у человека такое состояние. Тот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вышел на встречу со мной, испугался, он меня приобнял, не зная, как меня успокоить. Но я вел себя внешне спокойно: не кричал, не прыгал, ничего. Я просто как будто сознание потерял. Я просто шел и шел себе. А он... По нашим правилам он должен был давно уйти, сообщил и ушел — вот как надо.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й. А он шел рядом со мной. Туда, где стояла моя машина. Лишь за несколько шагов до нее, он знал ее номер, он отстал, сказав: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будьте осторожны! Если что, я готов с вами пое-

хать». Я ему отвечаю: «Ради Бога, не надо! Этого не надо делать. Сначала вы уходите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отсюда, потом я уеду». Потом уже, конечно, он исчез. Я сел, поехал. Вы знаете, куда я поехал? Я сам не знаю, для чего я туда поехал. Поехал в другой крупнейший город, который находился в пятистах километрах. И вот, по так называемому хайвею, скоростной дороге, по которой можно в ночное время гонять со скоростью двести пятьдесят километров в час, я и несся. Обычно я в тот город ездил два-три раза в году, на скоростном поезде. На машине туда ни разу не добирался. Я ехал, ехал. К утру прибыл туда. Как будто какие-то дела там у меня есть. Я сошел с этой скоростной дороги, машинально куда-то свернул, в какой-то переулок, все еще не понимая, куда приехал. А потом внезапно как бы пришел в сознание: «Зачем я здесь?» Всю ночь ехал и к утру только немного пришел в себя. Я сильно рисковал. Меня в таком состоянии подстерегала масса опасностей, тысячи опасных моментов. Это, во-первых, скорость. И потом, хайвей почти все время как бы по мосту проходит. И только утром я осознал, насколько опасной была та поездка. Чтобы вынести такое известие, нужна сверхчеловеческая сила. И вот его не стало... Человека, которому ты все посвящаешь, именно этому маленькому человеку. И вот его не стало... Стало быть, никакой цели в жизни больше нет. Да еще страна, которой ты служил, ее тоже не существует. Бывает и такое в нашей работе».

Он поставил себя в руки. Продолжал работать. Из безработного, приехавшего в страну на поиски счастья, превратился в крупную фигуру, почет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большого города.

Он поставлял информацию неустанно. Особенно ценна была документа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Вот что называется «высшей» разведкой — самым высочайшим уровнем разведки. Как говорит один заслуженный ветеран СВР, «это пять с плюсом». Проблематика в годы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была понятна: планы ГР — главного противника. Так в спецслужбах называли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Глав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И работал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Ким так, что в 1987 году «за достигнутые результаты в служеб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проявленное при этом мужество» ему присвоили звание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нова строки из служебной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В особых условиях работал до 1989 года. Успешно руководил созданием при ег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м участии автономной нелегальной резидентурой, имел на связи источников ценной документа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добывал сведения по приоритетной проблематике, получившие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и реализованные по высшей разметке».

В работе в полной мере проявил свойственные ему смелость, решительность, сочетавшиеся с такими присущими ему качествами, как хладнокровие, общительность, предприимчивость и находчивость.

За достигнутые результаты в работе, проявленные при этом мужество и героизм в 1987 году удостоен звания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Награжден орденами Ленина, Красной Звезды, Красного Знамени, «За заслуги перед Отечеством» IV степени, медалью «За отвагу», нагрудными знаками «Почетный сотрудник госбезопасности» и «За службу в разведке», другими ведомственными знаками и медалями».

Источник: Долгополов Н.М. Легендарные разведчики-4. М., 2024. С. 93-113. — (Жизнь замечательных людей: сер. биограф.; вып. 2003).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саммите G7

16 июля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первой расширенной сессии саммита «Большой семёрки» (G7) во французском Эвиане, посвящённой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ы сокращения поток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мощи развитию.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он осветил трудности,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многие развивающиеся страны при доступе к технологиям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И), призвав к формированию партнёр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транами-донорами и странами-получателями для устранения таких диспропорц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распределения преимуществ достижений в области технологий ИИ между всеми странами,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развиваться вместе, 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различия не приводили к расширению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неравенства. Во время групповой фотосессии для лидеров стран-участниц саммита Ли Чжэ Мён кратко побеседовал с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Беседа продолжалась около 30 секунд. В кулуарах саммита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овёл двусторонние переговоры с канцлером Германии Фридрихом Мерцем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Канады Марком Карни.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и пути решения глобальных проблем. 17 июня Ли Чжэ Мён продолжил участие в заседаниях саммита G7, а затем отправился на родину, завершив 10-дневную поездку по Европе. В состав G7 входят Франция, Германия, США, Канада, Италия, Япония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Однако Франция пригласила страны-партнёры, включая Бразилию, Египет, Индию и Кению, помочь сформировать скоординированные ответные меры на глобальные вызовы. «Приглашение на саммит G7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доверия и ожиданий, которые мировое сообщество возлагает на РК»,- написа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на своей странице в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X накануне саммита.

У Партии инноваций Отечество новый лидер парламентской фракции

16 июня новым лидером парламентской фракции партии инноваций Отечество избран депутат Ким Чжун Хён. Он был единственным кандидатом на этот пост. Ким Чжун Хён, родившийся в 1963 году, является специалистом в област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Мун Чжэ Ина он возглавлял Корейскую дипломатическую академию, а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срока полномочий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22-го созыва входил в состав комитета по иностранным делам и воссоединению.

Истребитель KF-21 получил сертификат лётной годности

Истребитель KF-21, полностью созданный в РК, получил сертификат лётной годности, то есть, документ, который разрешает эксплуатацию самолёта без ограничений. Как сообщили 16 июня в Корейском агентстве оборонных закупок, сертификат выдан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серии испытаний, проводившихся с апреля 2021 года до начала 2026 года. В заключении экспертов говорится, что истребитель соответствует всем 745 требованиям в 14 областях оценки, включая электронные системы и конструкцию машины. К 2032 году в военно-воздушные силы РК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120 истребителей KF-21. Из них 40 самолётов, первонач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а воздушные бои, будут поставлены к 2028 году, а оставшиеся 80 самолётов с возможностями поражения наземных и корабельных целей, будут поставлены позднее несколькими партиями.

Певец Им Ён Ун помог социально уязвимым пациентам

Певец Им Ён Ун пожертвовал 200 млн вон (132 тыс. долларов) медицинскому центру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ё на оказание помощи пациентам из социально уязвимых слоёв населения. Им Ён Ун и его агентство Mulgogi Music передал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от имени официального фан-клуба певца Hero Generation. Им Ён Ун достаточно давно занимаетс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направляя средства на поддержку социально незащищённых слоёв населения, ликвидацию последствий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а также помощь детям и подросткам. По данным агентства, общая сумма его пожертвований достигла 2,5 млрд вон (1 млн 652 тыс. долларов).

Joshua из группы Seventeen выступит в штаб-квартире ЮНЕСКО

Joshua из группы Seventeen выступит 25 июня с речью в штаб-квартире ЮНЕСКО в Париже в качестве посла доброй воли молодёжи. Выступление станет частью глобальной молодёжной инициативы «Идём вместе - за молодёжное творчество и благополучие», запущенной совместно Seventeen и ЮНЕСКО.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будет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ЮНЕСКО Халед Эль-Энани, а трансляция будет вестись в прямом эфире на официальном YouTube-канале организации. Joshua - американец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Группа Seventeen была назначена послом доброй воли молодёжи ЮНЕСКО в 2024 году. Она пожертвовала 1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создание глобально-го молодёжного фонда.

RKI

Бюллетени, серверы и пикеты: В Южной Корее не утихает скандал из-за нарушений на выборах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одолжает развиваться скандал, который возник вокруг нехватки бюллетеней на выборах в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3 июня. В отставку ушел глава ЦИК, в подразделениях избиркомов идут обыски, перед самими участками уже больше 10 дней проходят акции протеста, где избиратели требуют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защиты своих прав, а некоторые и повтор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Ситуация стала главной 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ой и общественной новостью страны, сказавшись на рейтингах президента и ключевых партий.

Обыски в избиркомках

В воскресенье, 14 июня, объединенная следственная группа, составленная из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олиции и прокуратуры, провела обыск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еульской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и ряде районных избиркомов.

Следователи изъяли серверы, электронные носители информации и документы, связанные с подготовкой и проведением голосовани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ланируется начать допросы сотрудников избира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Расследование касается обстоятельств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го сбоя, произошедшего во время состоявшихся 3 июня выборов в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На десятках избират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в Сеуле неожиданно закончились бюллетени, что привело к приостановке голосования и многочасовым очередям.

По данным Центральной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число участков, где возникли проблемы с бюллетенями, оказалось значительно выше первоначальных оценок и может превысить пятьдесят. Часть избирателей покинула участки, так и не сумев проголосовать.

Скандал вызвал широкий общественный резонанс и стал причиной отставки председателя Центральной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Но Тхэ Ака, который принес публичные извинения и взял на себ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произошедшее.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Чжэ Мён поручил провести всесторонне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и выявить причины произошедшего.

Следствие сейчас пытается установить, являлась ли нехватка бюллетеней следствием обычной халатности и ошибок планирования, либо ответственные чиновники заранее знали о возможных проблемах, но не приняли необходимых мер. Именно ответ на этот вопрос во многом определит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одного из самых серьезных кризисов вокруг избирательной системы Южной Кореи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Митинги протеста не стихают

Несмотря на отставку руководства ЦИК, протесты продолжаются. В Сеуле и других городах участники акций требуют установить виновных и привлечь их к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Часть протестующих настаивает на проведении повтор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утверждая, что

из-за нехватки бюллетеней были нарушены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е права тысяч граждан. К протестующим также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студенты 16 вузов страны, которые на неделе в своих кампусах провели собственные пикеты и акции.

При этом в протестном движении постепенно наметилось разделение. Если часть участников выдвигает политические лозунги и говорит о возможных нарушениях на выборах, то другая группа, состояща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из молодых людей, призывает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а вопросе защиты избирательных прав граждан 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за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й провал.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получили определенн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 всевозможные "теории заговора", столь популярные среди крайних консерваторов, видящих во всех проблемах Южной Кореи происки коммунистов. Снова стали циркулировать слухи о "вмешательстве агентов китайских спецслужб", что было категорически опровергнуто властями.

Полиция же с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ю отмечает, что наиболее оголтелые активисты начинают идти на незаконные действия. Так,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они удерживали и фактически допрашивали тайваньского журналиста, приняв его за китайца. Кроме того, были произведены досмотры личных вещей спортсменов, которые пришли на тренировки в спорткомплекс, который сейчас блокируется протестующими и где ранее проходило голосование. Девушки были возмущены поведением протестантов, а полиция начала расследование инцидента.

Политическая проблема

Сам кризис уже приобрел затяжной характер и стал ударом практически для всех политических сил. Эксперты говорят о масштабном кризисе доверия к избирательной системе вообще, что, по мнению аналитиков, и стало главной причиной снижения рейтингов президента и правящего лагеря.

Особенно сильное возмущение вызвало то, что проблемы оказались сосредоточены в районах, которые традиционно считаются более консервативными. Именно это стало питательной средой для обвинений в возмож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предвзятости, хотя прямых доказательств этому пока не представлено.

Впрочем, многие протестующие говорят, что дело не в том, кто выиграл выборы, а в нарушении базового права граждан на голосова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раздражение вызвало признание ЦИК, что количество напечатанных бюллетеней рассчитывалось исходя из ожидаемой явки, а не полного числа избирателей. Это многим показалось недопустимым.

В любом случае, все сходится на том, что надо реформировать систему избиркомов и особенно ЦИК, который до этого уже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падал в скандал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Береговая охрана Южной Кореи помогла оставшейся без питьевой воды яхте из РФ

Служба береговой охран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по городу Тонхэ сообщила, что 13 июня утром в 10 часов 56 минут следовавшая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на корейский курортный остров Чечжу российская яхта водоизмещением 7,8 тонны обратилась с запросом о помощи. Согласно сообщению, на яхте полностью закончились запасы питьевой воды, что создавало потенциальную опасность для экипажа. Всего на борту было восемь человек.

В связи со сложившейся ситуацией, яхте было разрешено зайти в порт Чодон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строва Уллындо. На причал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лужбы береговой охраны передали экипажу упаковки с питьевой водой, после чего яхта проследовала дальше по маршруту.

В СБО РК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всегда будут действовать, исходя из принципа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морякам, попавшим в сложную ситуацию.

Отметим, что в ходе своих переходов российские суда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лучали помощь и укрытие на острове Уллындо, расположенном далеко от берегов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Так, в конце апреля-начале мая переживали непогоду в Уллындо три российских яхты, попавшие в шторм, а в январе СБО РК провела спасательную операцию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го сухогруза "Георгий Ушаков", который потерял ход и мог быть выброшен на скалы течение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Фильм «Колония»-лидер проката в ряде стран Азии

Зомби-триллер «Коло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Ён Сан Хо показывает высокие результаты в прокате ряда стран Аз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16 июня компания-дистрибьютор Showbox. Фильм, число просмотров которого в РК превысило пять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людях, оказавшихся в изоляции внутри крупного городского торгового центра, заблокированного из-за вспышки неизвестной инфекции. В Малайзии, где премьера картины состоялась 22 мая,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4 июня число зрителей превысило 1,5 млн человек. Фильм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кассовым сборам сред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ов, когда-либо показанных в стране. В Индонезии фильм привлёк более 1 млн 60 тыс. зрителей за 12 дней после премьеры и поднялся на второе место сред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ов по кассовым сборам. На Филиппинах с результатом около 340 тыс. зрителей картина заняла второе место, в Сингапуре - четвёртое, а в Таиланде и на Тайване - пятое место сред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ов за всю историю проката в этих странах.

KBS World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ручил паспорта юным жителям региона в День России

В День Росс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ась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первых паспортов школьника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Главный документ граждан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лучили 17 ребят из 14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бласти. Все они добились успехов в учебе, спорте, творчестве и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аспорта юным сахалинцам вруч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радиционная церемония проводится дважды в год — в День России и День Конститу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Ее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новятся школьники, которые проявили себя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и занимают активную жизненную позицию.

— У нас сложилась давняя традиция — в этот больш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раздник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обстановке вручать паспорта юным гражданам нашей страны. Целеустремленным, ответственным и трудолюбивым ребятам. Таким как вы. Сегодня вы становитесь взрослыми людьми. Получаете не только больше прав, но и берете на себ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судьбу страны. За будущее России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м мы передадим эстафету развития. Эстафету поколений. Быть гражданином России — почетно. Сахалин сегодня — это место для молодых и амбициозных людей. Которые хотят получить хоро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востребованную профессию и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ую работу. Для вас мы строим кампус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Ребята уже живут в современном студенческом городке. В самом центре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растут учебные и лабораторные корпуса. Оставляйтесь на Сахалине и своими руками делайте этот остров еще 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и развитым. С праздником! — обратился к ребятам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реди тех, кто получил паспорт, — Диана Попова из села Троицкого. Девочка учится на одни пятерки и успевает заниматься в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е. Диана — побед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фестиваля юных вокалистов и призер олимпиад по гуманитарным предметам. Сейчас она изучает китайский язык и думает связать с ним свою будущую профессию.

— Мне нравится участвовать в разных проектах и постоянно узнавать что-то новое. Сейчас я изучаю китайский язык и думаю, что в будущем хотела бы связать свою профессию с лингвистикой. Еще мне очень хочется рассказывать людям о Сахалине и показать, насколько это красивый и интересный регион, — рассказала Диана.

Свой первый паспорт в этот день получил и ученик школы № 1 Тымовского Ярослав Кукушкин.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успешно совмещает учебу, спорт и творчество. Он занимается баскетболом, окончил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отделение и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т в проектах «Движения Первых». В числе его достижений — победы и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в конкурсах и олимпиадах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 Я серьезно увлекаюсь баскетболом и хотел бы связать свою жизнь со спортом. В то же время мне интересна архитектура, потому что она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создавать что-то новое и полезное. В будущем хотелось бы работать на благ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участвовать в развитии родного края, — отметил Ярослав.

Для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церемонии получение паспорта стало важным и запоминающимся событием. Этот день ознаменовал новый этап в их жизни и напомнил о том, что вместе с правами гражданина приходи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будущее своей страны и родного региона. Поддержка талантливой и активной молодежи,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ее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являлись одними из ключевых задач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ёжь и дети».

На Шумшу начинают новый этап работ по увековечению памяти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а также специалисты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РФ и члены Российского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осетили остров Шумшу.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они оценили состояние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сле зимнего сезона, запустили подготовку к поисковым работам и возложили цветы к памятнику в честь Дня России.

На острове начали разворачивать полевой лагерь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поисковой экспедиции. Уже с 5 июля 50 патриотов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страны начнут поиски останков воинов-освободителей островов. Экспедиция продлится до конца августа.

— Важнейшая задача — найти павших героев и передать земле со всеми воинскими почестями, — подчеркнул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 Курильская десантная операция остается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эпизодов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завершившихся победой Красной армии и разгромом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Но эта страница истории до сих пор известна не так широко, как того заслуживает. Поэтому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сохранять память о ней. В этом году продолжаем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по созданию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 Шумшу. Полностью работы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к 2030 году.

Напомним, в 2025 году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на Шумшу завершили первый этап проекта. На острове установили 4-метровый бронзовый монумент Героев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Николая Вилкова и Петра Ильичева — морских пехотинцев, закрывших своими телами вражеские амбразуры. Разместили историческую инсталляцию из кортена — состаренной стали. Провели консервацию подбитой вражеской техники.

Сегодня специалисты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осмотрели мемориал и убедились: он благополучно пережил зимний сезон, несмотря на суровый климат острова.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должить обследование острова в районе горы Северной и села Байково. Объекты,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историческую и культурную ценность, будут законсервированы.

— На Шумшу создается федеральный музей, посвященный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Плотно взаимодействуем с коллегами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центральной России и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я. Уверена,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специалистов — художников, военных историков, поисковиков, музей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ластей — нам удастся создать достойный памятник истории. Он станет символом выдающегося подвига людей, завершивших на этом рубеже Вторую мировую войну. Новый музей позволит прикоснуться к истории,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воинов, а также вдохновит современников на продолжение дела героев и сегодня, —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Российского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го музея Юлия Купина.

Напомним, японские милитаристы превратили Шумшу в мощный укрепленный гарнизон 8,5 тысячи человек, 60 танками, сотнями орудий артиллерии. Противник соорудил около 60 бетонных дотов и дзотов, свыше 300 закрытых пулеметных точек, соединенных подземными ходами. Состав советского десанта был чуть более 8 тысяч человек. Красноармейцы с легким вооружением — 218 орудий и минометов — штурмовали остров без танков и тяжелой артиллерии и разгромили противника.

Лучших участковы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или памятными знаками губернатор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ручил памятные знаки участковым уполномоченным поли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спекторы были отмечены за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и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укрепление правопорядка.

Награды полицейским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обстановке лично вруч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 Участковые уполномоченные — самые близкие к людя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закона. Именно к вам жители идут за защитой и помощью, вам доверяют свой покой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И вы это доверие с честью оправдываете! Спасибо за выдержку и неравнодушие. Большая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ашим семьям, которые терпеливо ждут вас дома, — обратилс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амятный знак губернатора «Лучший участковый уполномоченный поли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режден в этом году. Первыми наград были удостоены майор полиции Ксения Валько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апитан полиции Елена Плещенкова из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и капитан полиции Сергей Керов из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Стражи порядка проявили принципиальность и неравнодушие, рассматривая обращения граждан, сыграли важную роль в профилактике бытового насилия и нарушени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а также помогли выявить преступления в области нелегальной миграции, незаконного оборота наркот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и алкогольной продукции. Имена лучших участковых определили с учетом мнения жителей.

— Участковым уполномоченным я являюсь уже 12 лет. Мой папа работал в полиции, и я тоже захотела служить. Быть участковым, значит помогать людям — разрешать конфликтные ситуации, привлекать к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Поругались супруги, собака лает за углом, цветы на газоне вытоптали, шумят по ночам — по самым разным вопросам обращаются к нам. Не всегда хватает времени на домашние дела, на своих детей, потому что работа может застичь в любой момент. Но мы стараемся никого не оставить без внимания — выслушать и обязательно помочь, — поделилась старший участковый уполномоченный полици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сения Валько.

Детский сад с бассейном в селе Китовом на Итурупе должны сдать в этом году

Во время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Курильский район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етил строительную площадку в Китовом, где сегодня возводятся детский сад на 110 мест и 18-квартирный жилой дом. Дошко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планируется сдать в конце 2026 года, а дом — в 2027-м.

Новый детский сад сделает доступнее дошко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для ребят от полутора до семи лет. Юным жителям села не нужно будет ездить на занятия в райцентр. Рядом с домом создадут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всестороннего развития детей. Здесь организуют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занятия в бассейн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а также раннюю коррекционную помощь с логопедом и психологом.

—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затынули. В этом году детский сад необходимо сдать. Вводим жесткий 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нтроль, чтобы сроки работ соблюдались,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отовность объекта на сегодня составляет 40 процентов. В двухэтажном здании площадью свыше 43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предусмотрены помещения для пяти групп детей разного возраста, пищеблок, бассейн, постирочная и мастерская. Также в детском саду разместятся по два музыкальных и физкультурных зала, медицинский блок, кабинеты специалисто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и бытовые помещения.

— Выстроен график работ до конца года. Сейчас необходимо доставить вентиляционное и слаботоч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могаем застройщику договориться с поставщиками. Керамогранит должен прийти к концу июня. После стартуют работы по фасаду и кровле, — сообщил губернатору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иколай Давыдов.

Рядом с детским садом возводят трехэтажный жилой дом. В нем предусмотрено 18 квартир: 6 двухкомнатных и 12 трехкомнатных. Стены новостройки уже возведены, сделан фасад, сейчас силы брошены на обустройство крыши, наружных и внутренних инженерных сетей. Комфортные квартиры курильчане получат по программе переселения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и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жизни»,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15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правились с плановым ямочным ремонто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83% завершен плановый ямочный ремонт. С задачей справились 15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кругов. В Томаринском, Тымовском и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ах работы завершены досрочно. Дефекты своевременно устранены как на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дорогах, так и на дорог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Еженедельно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оклад 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ямочного ремонта заслушивает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Прежде всего меня интересует, какую оценку ремонту дают наши жители, поступает ли критика. К обращениям людей требую относиться внимательно и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них своевременно,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области.

Во время весенне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на дорог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 выявлен 8 401 дефект общей площадью 94 128 кв.м. 7 536 ям общей площадью 78 408 кв.м уже устранены.

—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продолжается на местной улично-дорожной сети в 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е, а также на региональных трассах. Сегодня в процесс включились Охинский и Ногликский районы.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где плановый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завершили к началу июня, уже идут более трудоемкие работы. Они включают не тольк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изношенного асфальта, но и замену слабых грунтов. На всех этапах организован контроль по соблюдению стандарта качества. Работы с нарушениями заказчики не принимают и не оплачивают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замечания не будут устранены,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трансе отметили, что ряд дефектов на дорогах не попал в программу планового ямочного ремонта, так как они образовались уже после весенне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Их устраняют по мере выявления собственником автодороги или по сигналам от жителей. Для выполнения этих работ необходимо заключ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госконтракты, поэтому и срок их завершения может отличаться от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планом. Кроме того, часть деформаций на дорогах, которые были замечены внимательными жителями, ликвидируют в течение лета в ходе более сложных работ — ремонта дорожного покрытия с заменой слабых грунтов и ремонта картами.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могут напрямую сообщать о дорожных дефектах на официальных страница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в соцсетях, а также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Сахалин.онлайн.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был завершен к 1 июня, а в остальны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в том числе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закончится до 1 июля.

На Итурупе завершаю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временного здания для полиции

Гл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Куриль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проверил ход возведен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зданий ОМВД.

Готовность объекта составляет 82 %. Сейчас на площадке работают 30 строителей. Они занимаются монтажом дверей и решеток, внутренней отделкой помещений, установкой систем вентиляции, отопления и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 Это значимый для района объект. Принят ряд решений,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в этом году завершить переселение. Это важно, потому что наша полиция должна работать в хороших условиях,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овое здание заменит старую довоенную постройку. Впереди — завершение инженерных работ, подключение к магистральным сетям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рилегающей территори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유럽 판로, 동포가 열었다"... 570건 수출 상담 성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K-EXPO SPAIN 2026’ 개최
국내 기업 81개사 참여...2,200만 유로 규모 수출 상담 570여 건 진행
유럽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활용해 국내 기업 해외 판로 확대 지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이 올해 ‘권역별 한상대회*’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한 「K-EXPO SPAIN 2026」가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됐다.

* 2026 권역별 한상대회 시범 사업 : 전 세계 주요 동포경제단체들이 주최하는 행사 중 「세계한상대회 효과의 연중 확대」지역별 동포경제단체의 역량 강화 「동포기업-국내기업 상생 기반 마련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향후 권역별 한상 네트워크 행사로 확대해 나갈 예정

이번 행사는 (사)유럽한인경제인단체총연합회(회장 고광희, 이하 유경연)가 주최한 남유럽 최초의 K-비즈니스 박람회로, 국내 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과 현지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현지 사정에 능통한 동포경제단체가 직접 주도하고 정부, 지자체가 참여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유경연*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인천, 충남, 경북, 전남 등에서 국내기업 81개 사와 유럽 전역의 동포 경제인 및 해외 구매자 317명이 참가했다.

현장에는 관람객 4,000여 명이 방문했으며, 총 570여 건, 2,200만 유로(약 390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다.

* 상기 수치는 6.14. 기준 집계 결과
참가 기업들은 화장품, 식품, 라이프스타일, 주얼리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현지 소비자와 구매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김경협 청장은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동포 경제단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우리 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오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24차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한다.

동포 경제인과 국내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글로벌 최대 동포 경제인 행사인 세계한상대회에서는 경제 포럼, 기업전시회, 1대1 수출상담회, 스타트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비즈니스 교류 행사가 운영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청, 국내 스타트업 '캐나다 진출' 돕는다

토론토서 AI·첨단제조 분야 스타트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한상 네트워크 활용해 현지 투자자·기업과 연결 지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6월 9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2026 스타트업 해외진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청은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한상기업으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해왔다.

이번 설명회는 재외동포청이 토론토에서 개최하는 두 번째 스타트업 행사로, 토론토가 캐나다 내 혁신 허브이자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형성된 지역이라는 점을 적극 고려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AI·첨단제조 분야 국내 유망 스타트업 5개사*가 참가했으며, 재외동포 경제인과 현지 투자자, 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 [첨단제조] EV&Solution(이브이앤솔루션), [AI] SPOTLITE(스포트라이트), DEEP INSIGHT(딥인사이트), Inventis(인벤티스), KSMC(한국안전관리센터)

행사 기간에는 캐나다 시장 진출 전략 모색을 위한 세미나, 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 기업 개별 미팅 및 네트워킹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 기업들은 투자상담 총 40건을 진행했으며, 상담액은 1,940만 달러로 집계됐다.



김경협 청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술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가며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의 열정에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스타트업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중요한 여정”이라고 강조하며, “재외동포 경제인의 경험과 네트워크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자산”이라고 평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 스타트업과 재외동포 경제인을 연결해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1960년대 한국간호사의 독일 진출을 이끈 이수길 박사

재외동포청, 2026년 6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故이수길 의학박사 선정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자 한·독 양국 인적·문화적 교류의 토대가 된 파독 간호사 사업을 주선한 故이수길(1928-2023) 박사를 2026년 6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간호사의 독일 진출 길 열어

이수길 박사는 1960년대 독일 마인츠 대학 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며, 독일 의료계의 인력 부족 상황을 한국 정부에 알리고 한국 간호사들의 독일 진출을 적극 추진했다.

1965년 그는 독일 내 10여 개 병원에 직접 서신을 보내 한국 간호사 채용 의사를 타진했고, 우리 정부와 협의해 간호사 파동을 주선했다. 그 결과 1966년 128명의 간호사가 처음 독일로 향했다.

당시 해외 출국 자체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지만, 그는 채용 과정부터 비자 발급까지 직접 챙기며 간호사들이 무사히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이 박사는 파독 간호사들이 낯선 타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차별 없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썼다.

이후 1975년까지 1만여 명의 한국 간호사들이 독일로 파견됐고, 그들이 송금한 외화는 우리나라 경제 개발과

산업화 과정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파독 간호사들은 독일 내 동포 사회를 형성하며, 한·독 우호 관계 증진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인도주의적 실천과 한·독 교류 기여

이 박사는 독일 마인츠에 한독협회를 창설하고 회장을 맡아 양국 교류에도 힘썼다.

또 한국의 선천성 심장기형 아동 30여 명이 독일과 미국에서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장애아동 지원단체인 ‘한국소아마비협회’의 전신 ‘삼애회’ 발족에도 기여하는 등 인도주의 활동에 적극 나섰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리 정부는 1987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했고, 1998년 독일 정부는 국가공로 십자훈장을 수여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파독 간호사들은 머나먼 타국에서 묵묵히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라며, “이수길 박사는 그 길을 처음 열고 뒤에서 든든히 지원한 숨은 주역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파독 간호사 독일 진출 60년이 되는 해”라며 “이수길 박사와 파독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6월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Середина неба»: в СахГУ прошёл музыкальный спектакль, объединивший русские и корейские традиции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анице 4)

И именно в такие дни мы вспоминаем, что традиции учат нас быть вместе», —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Эльвира Лим.

Перед началом спектакля для гостей развернулась интерактивная программа в кампусе «Сахалинтех». Дети и взрослые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традиционными корейскими играми, предметами культуры, получили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попробовали традиционные сладости.

Главным событием вечера стал музыкальный спектакль,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30 артистов — студентов и школьников Сахалина. Сценарий сплёл воедино обряды двух народов: русские поверья о целебной силе воды и трав в купальскую ночь, поиск цветка папоротника, прыжки через костёр — и корейские ритуалы изгнания злых духов, укрепления общинных связей, а также символизм пяти цветов (обан) и божественного стража хэтхэ.

«Такие проекты, как «Середина неба» являются для нас живой иллюстрацией того, как университет становится пространством для подлинного диалога культур. Когда зрители — и наши студенты, и гости из Южной Кореи — аплодируют стоя, мы понимаем: единство не декларируется, оно создаётся здесь и сейчас — через творчество, уважение и открытость. Именно так мы воспитываем новое поколение, для которого «дружба народов» — не абстрактная формула, а личный опыт», — рассказа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ректора СахГУ Алексей Огнев.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проведение такого масштабного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события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руководства вуза,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и добровольцев. «Середина неба» ещё раз доказала: дружба не знает границ, а Сахалин — место, где рождается культурный диалог.

Валерия Чен,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ГУ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СахГУ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Основой программы стали проверенные временем джазовые стандарты и любим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знакомые каждому ценителю и любимые самими музыкантами. В сольных партиях каждый инструменталист коллектива смог раскрыть свой потенциал, добавив вечеру живой импровизационной энергии.

Джазовый оркестр мастерски выдержал баланс между тонким лиризмом и драйвовым звучанием, удерживая внимание зал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лутора часов.

Украшением концерта стали вокальные номера. Александра Баленко, Виктория Малютенко и Павел Венцовский сменяли друг друга на сцене, выступая сольно и в дуэтах. Сахалинские музыканты подарили слушателям живое, искреннее и даже отчасти трогатель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Этот концерт наглядно подтвердил, что джаз — это универсальный музыкальный язык, не требующий перевода.

유즈노사할린스크, <노래하는 박물관 시즌 행사 마무리

6월 12일 사할린주미술박물관 전시관에서 열린 마지막 공연은 시즌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주최 측이 관람객들을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한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기획상 대대적으로 공연 장소를 바꾸어 모든 예술활동이 야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사할린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박물관의 전시관에서 열린 실내 공연에 관객들은 몰입감으로 빠져들었다. 사할린 국립발레단의 우아한 무용수들은 전시관 바로 가운데서 무용의 가장 어려운 작품을 선보였고, 클래식 기타 이중주는 강렬하고도 예술적인 연주를 펼쳤으며, 하얀 로얄피아노에서 올레그 아노힌 피아니스트는 즉흥적인 곡을 연주했고, 다중 악기 연주자인 미하일 월로흐는 플룻 연주로 섬세한 선율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했다. 또한 솔리스트 마리나 키셀료와의 노래는 다양한 음악 장르로 세계적인 명곡들을 불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귀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그는 "이러한 기획은 모두가 높은 예술성에 더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가게 하고, 독특하고도 생동감 넘치는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여러 예술적 분야가 한 데 모여서 각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탄생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지사의 방문 중 문화유산 보존의 섬세하고 치밀함을 주제로 하는 새롭고 독특한 전람회가 발표됐다. 전시기획으로 러시아 미술아카데미 학술연구 박물관의 소장품들로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직접 사할린으로 공수해온 작품들이 있었는데 전시회에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복원된 서유럽 회화의 대가들의 작품 14점이 전시되었다. 전시회는 그림의 원래 모습을 복원하는 복원가들의 정교하고도, 꼼꼼한 작업과정을 생생하게 설명해주었다.

음악과 미술 외에도 <노래하는 박물관>은 관람객들에게 화려한 패션쇼를 선사하고, 8개월(지난해 10월 - 올해 5월) 동안 박물관에서 매주 '시의 대결' 형식으로 진행된 대규모 시 낭송 마라톤대회 총결산 발표는 행사의 중요한 숨은 기획이었다. '시 대결'에서는 공식적으로 스웨틀라나 밀레이키나가 최우수 시인으로 선정됐다.

이번 예술축제에 사할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솔리스트이며, 유명 티비 및 라디오 방송 진행자이고, 미스 '극동의 로만시야다' 칭호를 받은 야로슬라브나 칼라슈니코와가 예술감독과 사회를 맡았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вершили сезон «Поющего музея»

Финальный вечер в закрытых залах стал кульминацией сезона.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для публики эксклюзивную программу, ведь уже со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и проект кардинально меняет локацию — все последующие творческие встреч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щальный вечер в музейных интерьерах полу-

чился по-настоящему иммерсивным. Грациозные танцовщиц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балета Сахалина исполняли сложнейшие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е номера прямо посреди выставочных залов, буквально в сантиметрах от бесценных экспонатов. Акустическ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вечера обеспечил мощный творческий тандем: за белым роялем импровизировал маэстро Олег Анохин, а мультиинструменталист Михаил Волох завоорожил публику тонкими звуками флейты. Дополнила атмосферу солистка Марина Киселева, исполнившая мировые вокальные хиты в разных музыкальных жанрах.

Одним из почетных гостей финального вечера ста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ие проекты создают особую, живую культурную среду, в которой высокое искусство становится ближе и доступнее каждому. Важно, что на одной площадке встречаются разные творческие направления и рождаются новые идеи, объединяющие людей самых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 поделил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визита губернатору презентовали новую уникальную экспозицию, посвященную тонкостям сохранения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Выставочный проект прибыл на остров напрямую и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 из фондов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музея при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художеств. Экспозиция включает 14 отреставрированных полотен западноевропейских мастеров XVII—XIX веков. Выставка наглядно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кропотливом, почти ювелирном труде реставраторов, возвращающих картинам их первоначальный облик.

Помимо музыки и живописи, «Поющий музей» подарил зрителям яркие модные показы. Главной же интригой вечера стало подведение итогов масштабного поэтического марафона, который в формате еженедельных «поэтических дуэлей» проходил в музее на протяжении восьми месяцев — с октября по май. Лучшим поэтом сезона официально признана Светлана Милейкина.

Бессменной ведущей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м руководителем этого праздника искусства выступила солистка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известная теле- и радиоведущая, обладательница титула мисс «Романсиад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Ярославна Калашникова.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6 г.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